

BASF, 어린이 화학 체험교실 운영

10월13일-11월4일 울산·군산·여수공장에서 ... 초등 3-6학년 대상

한국BASF는 10월13일부터 11월4일까지 울산, 군산, 여수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한국바스프 어린이 화학체험교실(BASF Kids Lab)을 실시한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울산공장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공장 인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화학 체험교실을 시행해 왔다.



화학 체험교실은 참여 어린이들이 화학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실험 프로그램과 화학 및 과학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실험 후에는 직접 공장견학을 통해 화학산업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2005년에는 사업장별로 2회씩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13일과 14일에는 시 외곽에 위치해 실험학습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척과초등학교와 검단초등학교 3-4학년 2개 반을 초청해 울산공장에서 진행하며, 20일과 21일에는 군산 소룡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군산공장을 방문해 키즈랩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1월 3일과 4일에는 이례적으로 여수공장 팀이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BASF 키즈랩은 참여 어린이들이 소규모 화학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화학원리를 즐겁게 배우도록 고안된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으로 1997년 6월 BASF 본사인 독일

Ludwigshafen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6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왔다.

아시아에는 2002년 소개됐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디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지에서 열리면서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한국BASF의 김종광 회장은 "BASF 키즈랩 프로그램은 BASF의 미래비전인 BASF 2015의 4대 전략적 방침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BASF는 BASF 키즈랩 프로그램이 미래의 과학발전을 위한 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10/13>